

도요타기켄(豊田技研) 일본의 제조경쟁력을 세계에 알리다

1) 기업개요

- 소재지 : 群馬県藤岡市白石2155
- 분 야 : 금형 설계, 부품 제작
- U R L : <http://toyodagiken.co.jp>

2) 기업 소개

□ 연속되던 시행착오

- 도요타기켄(豊田技研)은 자동차 헤드램프 부품 등의 금속프레스 가공업체로, 금형제작에서 프레스가공, 용접, 도금, 도장에 이르기까지의 일관된 생산체제를 가장 큰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기업임
- 군마(群馬)현¹⁾에 두 개의 공장 가지고 있으며, 2006년 베트남 하노이 근교에 첫 해외 공장을 만들어 주로 현지의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주를 받아 생산하고 있음
- 베트남 투자액은 총 4억 엔으로, 프레스가공, 용접, 도장, 검사·포장의 일련의 공정을 모두 소화해내고 있으며, 일본인 직원 3명과 현지 채용 직원 70명이 근무하고 있음

1) 군마현(群馬縣) : 일본 간토 지방 북서부에 있는 현으로 현청 소재지는 도쿄에서 100km 떨어져 있는 마에바시(前橋)임. 또한 일본열도의 거의 중앙에 위치해 있으며 바다가 없는 내륙 현으로 현토의 약 3분의 2는 구릉 산악지대임

- 미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에 현지 생산을 검토하면서 베트남에 진출하게 된 배경은 ‘국내만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’는 위기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음
- 그 동안 거래가 없었던 대기업과의 거래가 성사되면서 그 성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 해외생산에 나서기까지의 길은 험난했음
- 가장 먼저 해외 현지생산을 검토했던 시기는 1990년대로, 당시에 북미 진출을 염두에 두고 1997년 미국 시카고에 영업소를 개설했으나 품질 확보가 어려운 것을 알고 포기했음
- 2005년에는 중국 광저우에 사무소를 열고 정보를 수집했으나 진출을 결정하기 직전에 도금재료의 사용규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진출을 보류했음
- 결국 2005년 10월 주요 거래처가 이미 진출해 있는 베트남에 현지법인을 설립하면서 해외 현지생산을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었으며 2006년 10월에 공장을 완공했음
- 베트남 당국으로부터 투자허가를 받아 현지 대졸자 4명을 간부로 채용하여 조직 구성에 착수했음
- 현지채용 근로자의 약 60%가 20대 근로자로 구성됨
- 대부분의 현지 근로자들이 손재주가 뛰어나 수작업에 능숙하다는 장점은 있으나 ‘일이 순서대로 이루어진다는 발상’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음
- 연간 전체의 약3%정도의 근로자가 바뀌지만, 일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는 2명의 현지직원이 품질관리를 담당하면서 일본의 제조기술을 현장에 서서히 접목시켜나가고 있음

□ 태국 등에서 생산도 염두에 두다

- 사실 베트남에서 단순 프레스가공만 해서는 큰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함
- 중요한 것은 도금인데, 도금처리 기반이 거의 없는 베트남에서 일본계 부품업체의 일을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- 자동설비를 도입한 도금공정에서는 인건비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에 20년간 축적해 온 도금처리의 노하우가 수주 확대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
- 앞으로는 베트남 뿐 아니라 생산의 중심축을 태국, 말레이시아, 인도네시아 등으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음
- 반면 일본 국내 공장에서는 시제품과 더불어 단기간에 납품해야하는 기획·개발형 제품만을 생산하는 체제로 점차 바뀌나갈 계획임

□ 기술력에 의한 승패

- 이 회사는 중국에 버금가는 제조공장으로 베트남을 꼽고 있으며, 도금과 프레스기술로 베트남에 뿌리 내린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음
- 인건비가 일본의 15분의 1인 베트남이지만 단순 프레스가공을 하청하는 것만으로는 승산이 없다고 함
- 오랜 베트남 사업 경험을 통해 앞으로는 도금을 중심으로 한 기술력이 승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